

경제와 사랑

황 의서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1) 들어가는 말
- 2) 사랑과 자기애와 사욕의 개념 정리
 - 2.1) 사랑과 자기애
 - 2.2) 자기애와 이기심
 - 2.3) 자기애와 사욕
- 3) 사랑 없는 경제행위의 한계
 - 3.1) 효율성과 공평성의 한계
 - 3.2) 자연법칙과 이기심의 한계
 - 3.3) 합리성의 한계
- 4) 사랑을 통한 경제행위의 완성
 - 4.1) 사랑을 통한 연역법의 완성
 - 4.2) 경쟁과 사랑
 - 4.3) 사랑의 변증법과 경제발전
- 5) 맺는말

1) 들어가는 말

경제인과 경제동물간의 차이가 경제이론의 분석에서 큰 의미를 갖지 못하는 현실에서, 미국 금융가의 비도덕적 행위는 주택시장의 거품 경제와 금융위기를 불러 왔다. 경제인들의 비도덕적 행위들을 비판할 만한 적합한 기준들이 없고, 이들의 행동을 묵인하는 경제계의 동향은 경제학이 그동안 얼마나 잘 못된 방향으로 흘러왔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경제를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려면 우선 먼저 경제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성경에 언급되는 청지기 또는 경제인이라는 개념은 경제동물과는 구분되는 것이다. 경제인에게는 의식주를 해결하는 본능적 행위보다는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규범적 행위가 요구된다. 창세기 1장 26절에 따르면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다스리도록 지음을 받았다. 만물관리의 기본이 되는 경제행위 속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규범적 요구가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경제인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창조주의 질서를 회복시켜가는 사명을 부여 받았고, 창조 질서의 핵심적 가치 중에 하나는 사랑이다.

경제학의 창시자라고 볼 수 있는 아담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자기애(Self-love)를 경제행위의 동기로 주장하고 있다. 예로, 빵가게 주인이 아침 일찍부터 빵을 굽는 이유는 남을 보살피려는 자비심에서가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과 자신의 이익에 기초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본 논문에서는 경제행위의 동기인 자기애(Self-love)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love)에 기초를 두고 있고, 경제행위에 미치는 사랑의 역할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사랑의 역할이 강조될 때에 경제인은 경제동물과 구분되는 본래의 모습을 회복시켜갈 수 있을 것이다.

2) 사랑과 자기애와 사욕의 개념정리

2.1) 사랑과 자기애

요한일서 4장 8절에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라고 기록하고 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신다. 십계명도 사랑하라는 말로 압축되는 것이다. 십계명의 첫 번째 단락은 “하나님을 사랑하라”이고, 두 번째 단락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이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기독교의 교리를 실천하기 위하여 먼저 필요한 것은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것이다.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만이 이웃도 사랑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 동일한 것이다.

아담 스미스에 따르면 인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실천하려면, 그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대개심(reformation)을 체험해야 한다고 본다¹⁾. 즉 창조주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상태를 말한다. 이는 성경에서 말하는 거듭남의 과정과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담 스미스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할 수 있다는 것이다.²⁾ 즉, 자아사랑과 이웃사랑간의 균등관계를 아담 스미스는 주장하고 있다. 독일 철학자 헤겔 역시 사람은 사랑을 받는 만큼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자기애를 향상시키는 길은 결국 타인을 사랑하는 마음을 키우는 것과도 같은 것이다. 자기애는 타인을 향한 사랑과 분리되기 보다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통일체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 쪽 면이 커지면 다른 쪽도 자동적으로 커지는 것이다.

자아사랑과 이웃사랑이 서로 균등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동질의 것이기 때문이다. 즉 모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면 자기애이고, 타인을 사랑하게 되면 이웃사랑인 것이다. 자기애, 이웃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본질은 동일한 것이고, 단지 서로 다른 형태로 나타는 것 뿐이다.

아담 스미스에 따르면 자기애 또는 이기심(Self-interest)의 증대는 궁극적으로 분업의 확대를 가져오고, 결과적으로 이웃과 사회에 더 많은 유익을 주면서 더 큰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³⁾ 만약 자기애가 작거나 없었다면, 자신의 재능을 더디 개발하거나 개발을 포기했을 것이고, 이는 분업의 확대를 가져오지 못하기 때문에 이웃과 사회에도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이다. 자신의 재능을 개발하려는 자기애는 이웃사랑으로 귀결되는데, 이는 그 뿌리가 같기 때문이다. 자기애와 이웃사랑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결국 자기애는 세 가지 성격을 갖고 있다 첫째로 자아사랑은 이웃사랑의 전제조건이 되는 것이고, 둘째는 자아사랑과 이웃사랑 간에는 균등관계가 성립하고, 셋째는 자아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한 부분이다.

1) 아담 스미스 저, 박세일 민경국 공역, 도덕감정론, 비봉출판사, 1996, 페이지 282.

2) A. Smith, The Theory of Moral Sentiments, P. 25. "so it is great precept of nature to love ourselves only as we love our neighbour,"

3) A. Smith, The Wealth of Nations, P. 15 ff. "It is encouraged by self-interest and leads to division of labour," "thus giving rise to differences of talent more important than the natural differences,"

2.2) 자기에와 이기심

아담 스미스는 자기에와 이기심을 동일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그 후에 사람들은 경제행위의 동기로 이기심만을 강조하고, 자기에와 구분되는 것으로 이해하려고 한다. 이기심을 자기에와 구분하려는 것은 결국 사랑을 경제행위의 동기로 보지 않는 것과도 같다.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위하여 행동하는 이기적 인간으로 경제인을 만들고, 지대추구(rent seeking)만을 하는 경제동물로 이해하려고 한다. 경제행위에서 윤리적 요소들을 제외g)만을추세는 경제같다.센에 따르면 경제같을 공학적 측면에서 접근하고, 인간적 요소들을 제거하려는 착오라고 주장한다.⁴⁾

경제공학은 아담 스미스가 생각했던 사랑에 기초한 경제행위를 외면하고, 경제인을 주어진 상황에서 손익계산만을 하는 경제동물로 이해하려고 한다. 윤리의식을 상실한 극단적인 경제인에게 공동체는 존재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개인 이익만이 우선된다. 개인 중심의 경제행위에서 이웃사랑이나 사회적 가치들은 고려 대상이 되지 못한다.

실제 현실을 보면 인간들의 경제행위는 동물들의 경제행위와는 구분된다. 동물들이라면 서로 모르는 사이에서 자신의 밥그릇 싸움만을 하려고 하지만, 인간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에서도 사랑 안에서 협력할 줄 알고, 상생을 통하여 더 좋은 결과를 얻어 낼 줄 안다. 분업에 기초한 시장경제를 만들어 내고, 그 속에 살면서 서로 전혀 모르는 사람들 간에 상품교환을 한다. 이기심만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시장경제는 온전히 유지되기 어렵다. 남을 배려하지 않는 이기적 행위들은 시장경제 질서를 훼손시켜 갈 것이다. 시장의 교환조건들을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만들어 가면서, 시장경제를 혼란 속으로 빠져들게 할 것이다. 대표적 예로, 중세기에 금화 속에 있는 금의 함량을 속여서 인플레이션을 유발한 그래쉬함의 사건을 들 수 있다.

시장교환에서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과 함께 남을 사랑하는 마음이 동시에 존재하지 않으면 남의 필요를 채워주기 어렵다. 서로의 필요를 채워 주는 시장교환이 균형을 이루고, 장기간 지속되려면 이기심에서 작동한 교환행위의 근본에 사랑이 있어야 할 것이다. 사랑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시장교환만이 자신의 필요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를 동시에 채워주면서, 서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어 가는 힘이 있다. 시장교환에서 각자가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 즉 타인에게 유익을 주는 결과가 나타난 것을 아담 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손의 섭리라고 표현한다. 시장교환을 통하여 모두에게 유익을 주는 보이지 않는 손의 섭리는 창조주의 사랑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최근 미국의 경우 워렌 버핏이나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부를 축적한 자본가들이지만, 자신들의 재산을 사회에 헌납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이는 그들의 마음 안에 사랑이 존재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자신이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 대한 공훈을 베풀려는 마음은 거룩한 사랑의 표시이기도 하다. 많은 자본가들이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있지만, 그 내면에는 생명의 기본인 사랑이 잠재해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기심을 자기에와 분리할 경우 이러한 사랑에 기초한 경제행위들을 이해하는데 한계를 가진다.

결론적으로 경제적 현실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경제행위의 바탕에 자리 잡고 있는 사랑의 요소를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아담 스미스의 주장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이기심과 자

4) Amartya Sen, On Ethics and Economics, Oxford, 1987, P. 15 ff.

기애를 서로 상이한 개념으로 만드는 것은 사욕이 존재할 경우에 가능하다. 이는 경제학을 빈곤하게 만들어 간다.

2.3) 자기애와 사욕

인간이 자신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신을 사랑하는 행위는 자기애(Self-love)이고, 동물적 감각에 의하여 자신을 사랑하는 행위는 사욕(selfishness)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자기애(Self-love)와 사욕(Selfishness)은 서로 분명히 구분되어진다. 그 뿌리가 서로 다른 것이다. 자기애는 자아(Self)라는 중립적 존재와 사랑(Love)이라는 규범적 요소가 결합된 상태이고, 사욕은 사랑에 기초하기 보다는 자아(Self)라는 중립적 존재만을 강조한다.

심리학자 프로이드는 인간의 성격을 원초아(id), 자아(ego), 초자아(superego)로 구분하고 있는데, 원초아는 인간의 본능적 욕구를 나타내고, 초자아는 양심과 같은 도덕적 요소를 갖고 있다.⁵⁾ 원초아와 초자아는 서로 갈등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데, 이를 조정하는 것이 이성적 요소를 갖고 있는 자아이다. 프로이드의 분류를 이용한다면 자기애는 초자아와 자아가 결합한 상태이고, 사욕은 원초아(id)와 자아(ego)가 결합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에리히 프롬에 따르면 자기애는 사랑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사랑의 성격이 그 안에 존재한다고 본다. 사랑은 일반성과 보편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사랑에 기초한 자기애는 자신의 행동이 타인과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게 된다.⁶⁾

그러나 사욕은 사랑으로부터 분리된 것이기 때문에, 자기만을 인식하고 행동하다. 타인의 필요나 이해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려고 한다. 공동체와 융화 내지는 다른 사람들의 인격을 무시하려고 한다. 사욕은 사랑보다는 욕심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욕심은 절제를 모르고, 끝없는 만족을 추구하기 때문에, 욕심에 기초한 사람은 항상 불만족 상태에 머무르게 된다. 욕심은 자존감의 부족에서 나오는 것으로 결국 사랑의 결핍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사랑의 결핍이 만들어낸 사욕은 자신과 타인을 사랑할 줄 모른 것이다.⁷⁾ 에리히 프롬의 주장에 따르면 사욕과 자기애는 그 뿌리가 서로 완전히 다르다.

사욕에 기초한 행동과 자기애에 기초한 행동은 서로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아담 스미스 역시 사욕은 사회와 이웃을 고려하지 않는 행위를 유발하기 때문에, 비도덕적 행위를 가능하게 만들고, 사회에 악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에리히 프롬 역시 과도한 사욕은 사회를 불균형으로 몰고 갈 수 있다고 본다. 자신의 이익에만 충성하면서, 자신의 행동이 가져오는 전체적 파급효과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행동이다. 이는 집단 이기주의를 가능하게 만들고, 전체 사회를 파국으로 몰아 갈 수도 있다. 정치적으로는 나치즘이나 식민주의를 탄생시키기도 하고, 과격한 노동조합을 앞세워서 사회질서를 붕괴시키기도 한다.

한편 자기애는 사랑의 테두리 안에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5) 지그문트 프로이트 저, 박찬부 옮김, 쾌락 원칙을 넘어서, 열린 책들, 1997.

6) Eric Fromm, Selfishness and Self-love, in: Journal for the Study of International Process, Vol2(1939), pp. 507-523.

7) Eric Fromm, Selfishness and Self-love, 페이지 522.

행동을 스스로 억제하려고 한다. 타인의 이익을 부도덕하게 갈취하거나 노임을 착취하려는 행동을 할 경우 양심의 가책을 받고, 절제한다.

이기심은 사랑에 뿌리를 둔 자기애의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사랑을 모르는 사욕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자기애가 사욕을 지배하고 이기심을 주장하면 그 경제사회는 경제인이 활동하는 것으로 보인다. 경제인의 행동에서 사랑과 절제가 묻어 나온다. 반면 사욕이 자기애를 이기고 이기심을 지배하면 경제사회는 경제동물들이 활동하는 장소로 변한다. 투기가 난무하고, 적자생존의 법칙이 절대법칙으로 군림한다.

3) 사랑 없는 경제행위의 한계와 모순

3.1) 효율성과 공평성의 한계

완전경쟁시장의 균형은 가장 효율적 상태를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시장실패로 인하여 효율성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고,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정부개입이 주장되고 있다. 시장실패의 대표적 예로 무임승차가 가능한 국방이나 치안이 언급된다.⁸⁾ 환경오염이나 최근의 금융위기 역시 시장경제의 비효율성을 반영하는 현상으로 언급되고 있다.

실제로 무임승차가 가능한 원인은 경제인들의 잘 못된 행동에서 나온 것이다.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소비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상황에서 경제인들이 합리적으로 행동할 경우, 무임승차를 하게 된다는 주장이 그 기초를 이룬다. 여기에서 합리적 행동이란 실제로 양심을 속이는 행위를 묵인하고 있는 것이다. 양심을 속인다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행위이고, 이는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행위의 결과이다.

사랑을 외면한 경제행위는 자신의 마음을 외면하고, 상황의 지배를 받는 거짓된 행위도 용납하려고 한다. 사랑이 외면당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효율성을 사랑의 회복이 아닌 정부의 공급확대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차선의 해결방안이다. 무임승차로 인한 비효율성의 근본적 해결 방안은 우선 경제인 각자가 자신을 더욱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다. 비양심적 경제행위들로 인하여 비효율성이 발생한다면, 우선은 비양심적 경제행위를 감소시키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양심을 회복하는 지름길은 자신을 사랑하게 만들고, 자존감을 높여주는 것이다. 결국 효율성의 향상은 양심의 회복 특히 자아사랑의 회복을 필요로 한다.

공평성 역시 시장경제의 흐름 속에서 자동적으로 실현되기는 어렵다. 시장의 흐름은 자본의 집중현상을 초래한다. 자본이 많아질수록 이자율이 작아질 수 있고, 낮은 이자율은 기회비용을 낮추고, 더욱 더 많은 자본을 흡수한다. 자본의 집중은 자본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면서 부익부빈익빈의 결과를 초래하고 불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간다. 시장의 경쟁은 생산 자본들 간의 경쟁을 유발하면서, 효율적인 자본을 더욱 비대하게 만들어 간다.

자본집중현상으로 인한 불평등을 해결하려면, 경제공동체를 아끼는 사랑이 필요하다. 경제인들 간에 공동체 의식이 없고, 사랑이 없으면 불평등을 문제 삼으려는 분위기가 형성되기 어렵다. 그러나 분업을 통하여 서로 협력 관계를 이루고, 경제공동체를 이룬다는 인식이 있으면, 그들

8) D., Hyman, Public Finance, Ohio, 2005, 페이지 140 ff.

에게 심화되는 불평등은 마음의 부담으로 다가온다. 사랑은 불평등으로 인한 서로 간의 장벽을 허무는 역할을 한다. 사랑은 약한 자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풀면서 자본집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평등한 사회를 시정하는 역할을 하고, 공평한 사회를 형성해가는 원동력이 된다.

경제가 추구해야 하는 가장 중심적인 가치관인 효율성과 공평성이 시장경제에서 스스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지만, 문제해결을 위한 출발점은 경제인의 마음에 있다. 경제인이 사랑을 외면하고 오직 상황에 적응하는 자세로 행동한다면, 이는 비효율성과 불공평성을 확대시켜 갈 것이다.

그러나 경제인이 사랑을 회복하면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 비양심적 행위들을 억제하면서 효율성이 향상된다. 또한 강한 이웃사랑은 불평등으로 인한 불공평성을 제거하는 원동력이 된다.

3.2) 자연법칙과 이기심의 한계

맨더빌이 1714년 발표한 꿀벌의 우화는 개인의 이익 추구가 사회에 유익을 가져온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⁹⁾ 이는 자연에서 관찰되는 법칙을 기초로 하고 있고, 경제이론에서 이기심을 정당화시키는 근거로 인용되고 있다. 모든 동식물이 가지고 있는 이기심은 자신의 생존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게도 유익을 준다는 주장은 자연법칙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이다.

자연법칙에 속하는 이기심만 가지고 자연을 이해하고 다스리려는 것은 모순이다. 이기심을 오로지 자신의 생존만을 위한 자연법칙으로 이해할 경우 이기심은 경제를 불균형 속으로 몰아갈 수 있다. 예로 부동산 투기 붐이 일어나고 있을 때에 사랑을 모른 이기심은 빨리 투기 장세에 편승해서 가격이 폭락하기 전에 팔고 나와서 이익을 실현하는 것이다. 자기 뒤에 사는 사람이 막차를 타서 가격이 폭락하고 손해는 보는 것은 그 사람의 문제이지, 내 문제가 아닌 것이다. 주어진 상황에서 내 자신만 이익을 최대한 실현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동물적 경제행위를 한다면 부동산 투기 시장은 점점 더 크게 부풀려지고, 엄청난 사회적 혼란을 유발하게 된다. 심한 경우 경제는 붕괴될 수도 있다. 자신의 생존만을 염두에 둔 이기심은 동물적 경제행위를 유발하고, 결국 공동체 전체에게 피해를 준다. 자신이 추구한 이익은 잠시 뿐이었고, 모두가 손해를 보는 것이다.

한편 사랑에 기초한 이기심은 부동산 투기시장에서 마음의 갈등을 느낀다. 사랑은 일반성과 보편성을 고려하기 때문에, 사회에 악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사랑과 배치되고, 이는 자기애 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고 해도, 타인과 사회에 악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자기애는 거부하려고 한다. 결국 동물적 경제행위는 부동산 투기 시장에 편승하려는 행동을 부추기고, 사랑은 이를 억제하려고 한다. 경제인의 이기심은 사랑에 뿌리를 둔 자기애의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사랑을 모르는 사욕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자기애가 사욕을 이기면 그 경제사회는 안정을 보인다. 반면 사욕이 자기애를 이기면 경제사회는 혼란과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경제행위가 자연법칙과 이기심에만 기초하고, 사랑이 가지는 보편적 성품들을 의

9) B., Mandeville, The fable of the bees, Indianapolis, 1997.

면할 경우 경제공동체는 혼란과 위기 속으로 빠져들 수 있다. 자연법칙과 이기심만으로는 경제 위기를 스스로 탈출하는데 한계를 가진다.

이기심이 자연의 동식물 세계에서 그들의 생존을 보장하는 자연법칙이라 할 때에, 경제인과 경제동물의 이기심은 서로 구별되어야 할 것이다. 인간이 자연을 다스리라는 문화명령을 수행하려면 자연법칙을 알아야 하지만 자연법칙만을 가지고는 부족하다. 자연법칙을 능가하는 다른 법칙을 알 때에 자연법칙도 다스려 지는 것이다. 여기에서 자연법칙을 초월하는 법칙은 하나님의 의지이다. 경제인의 이기심은 자연법칙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반영해야 하고, 그 중심적 가치는 사랑이다. 자연 세계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스리려면 사랑의 법칙을 알고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 동물세계가 순응하는 자연법칙과 이기심을 초월한 하나님의 사랑이 반영된 이기심으로 자연을 다스릴 때에 창조주의 질서가 올바르게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

3.3) 합리성의 한계

인간은 동물보다는 뛰어난 합리성을 소유함으로써 인하여 분업도 하고, 자본도 축적하면서 경제 발전을 이루어 간다고 본다. 합리성으로 인하여 인간은 돈을 가지고 상품교환도 하고, 말과 글을 가지고 의사소통을 한다. 합리성은 인간의 삶을 풍요롭고, 쾌적하게 만든다. 한편 사회학자 맑스 베버는 합리성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첫째는 탈 합리적 행동과 합리적 행동, 둘째는 가치 합리적 행동과 목적 합리적 행동, 셋째는 주관적 합리성과 객관적 합리성이다.¹⁰⁾ 그는 경제에서 사용하는 합리성의 한계를 비판한다. 경제는 목적 합리적 행동과 과학적 합리성을 강조하지만, 인간이 가지는 인지능력의 한계는 자동적으로 과학적 합리성의 한계를 결정한다. 또한 객관적, 과학적 합리성만 가지고는 인간의 행동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존엄성은 인간을 도덕적으로 행동하게 하면서, 가치 지향적으로 행동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철학자 칸트 역시 인간이 합리성만을 바탕으로 행동한다면 기계와 같은 인간이 되고, 자유는 무가치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합리성을 능가하는 초월성이 인간을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 한다는 것이다. 인간이 진정한 자유인이 되려면 합리성을 뛰어 넘는 판단력과 통찰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영에서도 합리성만 가지고는 성공한 경영인이 될 수 가 없다. 합리성은 주어진 상황에서 가장 좋은 답을 알려준다. 그러나 성공한 경영인에게서는 창조성이 요구된다. 주어진 답안 중의 하나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답안을 만드는 것이다. 새로운 답안을 작성하는 데는 통찰력이 필요하다. 통찰력을 가지고 성공한 경영사례로 1995년 3월 9일 500억 원어치의 애니콜 핸드폰을 불태워버린 사건을 들 수 있다. 많은 비용을 지불한 무모하고, 비합리적 행동이라고 볼 수 있었지만, 그 결과는 애니콜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제품으로 만들었다. 합리성을 뛰어 넘는 판단력과 통찰력 때문에 삼성전자는 새로운 도약을 하게 되었다.¹¹⁾

합리성에 기초한 과학의 발달은 자연환경의 파괴를 가져오고 있다. 지구 온난화 현상을 막고,

10) 부루베이커 저, 라제민 역, 합리성의 한계, 법문사, 1985.

11) 강 준만, 이건희 시대, 인물과 사상사, 2005

자연환경을 보존하려면 합리성에 기초한 생산과 소비의 극대화 행동이 아니라, 욕구를 억제하는 절제가 필요하다.¹²⁾

최근에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예술과 문화의 분야에서는 합리성 보다는 창의력, 독창성, 예술성 등이 경제 가치를 만들어 낸다. 상품가치의 결정에서도 합리성이 강조하는 기능성보다도, 독창성이 만들어낸 디자인이 더 중요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인간이 개인적으로 가지는 고유의 성품과 성격들이 인정받으면서, 일반성과 법칙성을 강조하는 합리성은 그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경제문제의 해결에서도 합리성의 문제점과 한계가 점점 드러나고 있다. 특히 인간이 가진 인식과 정보의 한계는 부정확한 판단과 비효율적 행동을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예로 자연환경의 파괴나, 물질만능주의로 인한 인간성의 파괴, 도덕성의 타락 등은 합리성만 강조하는 사회가 만들어내는 부작용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안은 합리성을 뛰어 넘는 인간의 초월적 판단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결국 시장경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모두 합리적으로 행동한다고 해서 완벽한 균형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보이지 않는 손과 같은 외부적 요소가 개입해야 하는 것이다. 즉 경제인의 행동 규범 속에 시장경제를 초월해서 존재하면서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손의 의지가 반영되어야 하는 것이다.

경제학자 마샬 역시 경제인에게 필요한 성품으로, 합리성 못지않게 상상력을 강조하고 있다.¹³⁾ 제품을 생산하는 경영인이나, 경제인 모두 미래의 변화에 대한 정확한 예측 능력이 성공을 좌우하는 것이다. 직관이나 초월적 능력이 합리성의 한계를 보완하고 있다.

합리성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초월적 능력의 근원은 창조주의 능력 안에 있다. 인간이 창조주의 능력을 자신의 능력으로 만들 수 있다면, 초월적 능력도 보유할 수 있게 된다. 실제로 요한복음 16장 13절은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다.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고아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진리의 영으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그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진리의 영으로 더불어 초월적 능력도 보유할 수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효율성과 공평성과 합리성 모두 다 시장경제를 원활하게 운영하는데 필요조건들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시장경제에 참여하는 경제인들이 가지는 비도덕성이나 그 인지능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랑이 필요하다. 사랑이 없으면 비양심적 행위들이 용납되면서 경제는 혼란과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 특히 경제인들이 경제동물과 구분된 행동을 하려면 이기심이 사욕이 아닌 자기애에 기초해야 할 것이다.

4) 사랑을 통한 경제행위의 완성

4.1) 사랑을 통한 연역법의 완성

12) 레이먼드 머피 지음, 오수길, 정용일 역, 합리성과 자연, 도서출판 한울, 2000

13) Marshall, Alfred, Principles of Economics, London, 1959.

경제이론은 귀납적 방법과 연역적 방법을 동시에 활용하고 있는데, 경제행위를 왜하는가를 밝히려면 연역적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1)은 경제행위의 동기를 연역적으로 풀어가고 있다.

기업이 한계효용과 한계비용을 만나는 점에서 생산량을 정하는 것은 이윤극대화를 이루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근본원인은 효율적으로 행동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효율적인 행동은 다시금 합리적 사고방식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합리적 행위를 나타내는 분업의 원인을 아담 스미스는 자기애로 설명하고 있다.

표1) 경제논리의 기초가 되는 연역법 체계

```

If 사랑,          then 자기애.
=====
If 자기애,        then 합리적.
If 합리적,        then 효율적.
If 효율적,       then 효용극대화 내지는 이윤극대화.
If 이윤극대화,   then 한계효용 = 한계비용.
    
```

이러한 연역법이 계속이어 질 경우 자기애를 품은 사랑으로 귀결된다. 즉 아담 스미스에 따르면 자기애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명제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자신과 남을 사랑하려면 사랑을 알아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결국 자기애를 가능하게 하는 선제조건은 사랑이다.

If ---, then ---. 으로 이어지는 연역법적 논리 체계에서 제일 먼저 언급되는 단어는 사랑이다. 사랑이 자신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준다. 자기애는 합리성을 추구하고, 합리성은 효율성을 추구하게 만든다. 결론적으로 경제행위에서 추구하는 합리성과 효율성은 모두 사랑 안에서 이루지는 것이다. 사랑을 통하여 경제이론의 연역법 체계가 완성되어 진다.

그러나 표2) 에서 볼 수 있듯이, 자기애를 사욕으로 바꾸고, 경제행위의 동기를 사랑과 분리시킬 경우, 그 다음 단계로 이어지는 합리성과 효율성은 순수한 공학적 분석방법만을 다루게 된다.

표2) 사욕으로 시작되는 연역법 체계

```

If 사욕,          then 합리적.
If 합리적,        then 효율적.
If 효율적,       then 효용극대화 내지는 이윤극대화.
If 이윤극대화,   then 한계효용 = 한계비용.
    
```

경제학을 공학적으로 접근하려는 사람들은 합리성 추구를 출발점으로 하고, 경제현상을 분석하려고 한다. 이 경우 모든 경제행위는 객관적 현상으로 이해되고, 수학적으로 표현이 가능하

다. 여기에서 경제인이 소유한 감정이나 도덕심은 아무런 영향이 없다. 수학적 분석분석법은 정밀성에서 그 장점을 가지지만, 경제인의 행동동기를 사랑과 분리시킴으로 균형점은 공동체에게 유익을 베풀지 못할 수 있다.

예로 사랑을 모르는 합리성은 현재의 상황에 적응하려는 합리성을 추구하면서, 문제 해결에 동반되어야 할 고통이나 희생을 감수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러한 자세는 문제에 대한 단기적 해결방안을 제시할 뿐이고, 장기적으로는 해가 될 수도 있다. 사랑을 모르는 이기적 행위는 자신이 고려하는 범위를 자신에게 편한 기준으로 설정한다. 도움을 줄 경우 도움을 받는 사람보다는 주는 자신의 입장만을 고려한다. 이는 진정한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사욕에 기초한 합리성은 현재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자신의 희생을 감수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러한 접근 방법은 문제의 근원보다는 표면적 해결에 힘쓰려고 한다.

대표적 미국 대기업의 많은 CEO 들이 단기적으로 주주의 이익만을 고려한 행동을 하면서, 기업이 장기적으로 필요한 투자들을 외면해왔다. 이로 인하여 미국의 많은 기업들이 일본이나 다른 국가들의 기업들과 비교하여 경쟁력이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를 발견한 시점은 이미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위기에 놓인 시기였다. 사욕에 기초한 기업가들의 합리적 행위는 장기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그러나 회사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고려하고, 주주들에게 일시적으로 희생을 강요하는 사랑에 기초한 기업가들의 합리적 행위는 기업투자를 확대시키고, 장기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경제행위는 효율성과 합리성을 내포하고 있는데, 그 행위의 동기가 사랑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결과는 서로 다를 수 있다. 사랑은 일반성과 보편성을 지니기 때문에, 사랑에 기초한 자기애는 자신의 이득을 추구하지만 결과적으로 전체에 이득을 가져다준다. 경제인은 자신 안에 존재하는 위대한 조정자의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 안에서 행동하려 한다.¹⁴⁾ 그러나 사욕에 기초한 경제행위들은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대변하기 때문에, 일반성이 결여되어 있다. 부분적으로는 이득을 가져다주지만, 공동체 전체에게는 손실을 가져다줄 수 있는 것이다. 사욕에 기초한 부분균형의 합인 전체균형은 보이지 않는 손의 섭리를 반영하지 못한다. 결국 시장에서 형성된 균형가격이 올바르지 않고 왜곡된 정보를 내보내는 것이다.

시장의 불균형을 방지하려면, 경제행위의 동기가 사욕이 아닌 사랑에 기초하도록 연역법 체계를 바로 잡아야 한다. 경제행위의 출발이 사랑에 기초하고, 그 도덕성이 회복되도록 경제인들을 교육시키는 방법이 앞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4.2) 경쟁과 사랑

공산주의 사회는 경쟁이 없는 사회라고 맑스는 주장한다.¹⁵⁾ 그러나 공산주의 사회는 현실에서 도태되었다. 경쟁이 없는 사회는 발전을 향한 추진력을 상실하면서, 스스로 개선하려는 의지가 없다. 항상 옛 관습을 반복하는 사회가 된다. 슈페터가 주장하는 혁신(innovation)이 불필요하다. 기술혁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회는 정체된 사회이고, 변화가 없는 사회이다. 정체된

14) 아담 스미스, 박세일, 민경국 공역, 도덕 감정론, 비봉출판사, 1996, 페이지 262 “그리고 그의 행동에 대한 위대한 조정자가 그에게 그렇게 느끼도록 지도하는 대로 느낀다.”

15) 경쟁은 자본주의 시대의 산물이고, 공산주의는 자신과의 싸움을 통하여 발전해간다고 맑스는 주장한다. Marx, Karl, Einleitung zu den "Grundrisse der Kritik der politischen Oekonomie", Berlin, 1979, P.323.

사회를 선호한다는 것은 인류가 그동안 끊임없이 스스로를 혁신해온 과정들을 부인하는 것과도 같다.

실제로 인간사회는 스스로 변화되어 왔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는 성품은 모든 생명체가 가진 본능이라고 볼 수 있다. 변화되는 환경에 적응하고, 스스로를 개선하려는 능동성은 인간이 가진 성품이고, 창조주를 닮은 성품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가는 과정에서 서로간의 경쟁은 불가피하다. 자신이 가지는 비교우위의 성품을 찾으려면 다른 사람과의 비교가 필요하고, 이것이 곧 경쟁이다. 시장에서의 경쟁은 다른 사람보다 비교우위에 있는 자신의 능력을 찾아가게 만든다. 경쟁은 곧 공동체 모두에게 유익을 주려는 제도이다. 각자가 자신의 비교우위에 있는 재능을 발견하고, 이를 개발해가는 것은 결국 자신과 모두에게 유익이 된다.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도 경쟁을 시인하고, 이를 부정적으로 보지 않으신다. 아벨과 가인이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 위한 경쟁을 한 것을 나쁘게 보지 않으신다. 단지 경쟁에서 밀린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에 그 피 값을 묻고 계신 것이다. 경쟁에서 뒤진 사람이 악한 결과를 만들었을 때에 이를 책망하신다.

야곱의 부인 라헬과 레아는 서로 경쟁하면 자식들을 낳았다. 하나님은 그들의 경쟁을 질타하지 않으시고, 12명의 자식을 낳는 축복을 주셨다. 부인간의 경쟁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창대하고 번성하게 되는 길을 열어 놓은 것이다.

경쟁으로 인하여 사람들 간에는 격차가 발생하지만, 전체로 보아서는 총 생산량이 증가되어 모두에게 유익이 된다. 예수님도 달란트 비유에서 서로간의 경쟁을 유도하고 계신다. 각 사람들에게 서로 다른 달란트를 주고, 얼마나 많은 달란트를 만들어 냈는지 묻고 계신다. 예수님은 경쟁에서 스스로를 제외하고, 한 달란트를 묻어 두었던 사람을 책망하신다. 경쟁은 자신뿐만 아니라, 전체를 유익하게 만들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다. 경쟁은 결과적으로 공동체를 유익하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손의 섭리인 것이다.

경쟁의식 안에는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자리를 잡고 있어야 한다. 경쟁의 결과가 자신의 자존심을 상하게 만든다고 할지라도, 모두에게 유익을 가져다주었다는 사실에 기뻐할 줄 알아야 한다. 이러한 기쁨은 공동체를 향한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다. 사랑을 모르고 시기심과 질투로 무장된 사람은 자신이 남보다 뒤떨어졌다는 것만을 부끄러워 할 뿐이지, 모두가 더 많은 것을 얻었다는 사실에 기뻐할 줄을 모른다. 사랑이 없는 경쟁은 경쟁자들에게 상처를 가져다줄 수 있다. 개개인의 결과만을 서로 비교하고, 자랑하면 시기와 질투로 가득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다.

경쟁이 모두에게 유익한 결과를 가져다주려면 사랑에 기초해야 하는 것이다. 예로 비교우위의 교역으로 인하여 증가된 생산량을 교역 당사자 모두가 공정하게 소유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증가된 생산량을 한 쪽에서만 가진다면 비교우위에 기초한 교역은 무의미해진다. 이 경우 경쟁은 악용될 수 있다. 경쟁을 살리는 길은 공정한 보상이 항상 뒷받침되는 것이다. 경쟁으로 인하여 모두에게 혜택이 공정하게 돌아가게 하려면 모두를 동일하게 사랑하는 마음이 전제되어야 한다.

사랑이 없는 경쟁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려는 위험성이 있고, 이는 결국 경쟁자를 죽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경쟁이 경쟁자를 죽이는 상황으로 전개된다면, 다음 시기에는 홀로 생산을 하게 되고, 경쟁이 없는 상황이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혁신이 필요 없게 되고, 스스로 도태되어가는 것이다. 경쟁의 결과는 자신과 모두를 살리는 방향으로 나타나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경쟁은 사랑의 기초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사육에 기초한 행동은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결국에는 자신과 전체를 죽이는 결과를 초래한다. 사랑은 전체를 의식하는 마음을 갖게 만들기 때문에, 사랑에 기초한 경쟁은 다른 사람을 죽이려하기 보다는 그로 하여금 비교우위의 길을 찾아가게 만든다.

사랑에 기초한 경쟁사회는 모두에게 자신의 비교우위를 찾아서 서로에게 더 많은 유익을 주려는 활기찬 사회를 건설해간다. 그러나 사랑을 모르는 경쟁사회는 경쟁을 통하여 서로를 죽이는 사회로 만들어 가면서 전체와 스스로를 파멸시켜 간다. 경쟁은 상생과 공존의 사회를 효율적으로 만들어 가기 위한 보이지 않는 손의 섭리이다. 경쟁이 없는 경우 상생의 사회를 계획적으로 만들어 가야 하는데, 이는 정보부족으로 불가능하다. 시장경제에서 이루어지는 경쟁이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길이 가장 합리적일 것이다.

정부는 경제인의 마음에 사랑의 마음이 심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즉 보이지 않는 손의 섭리가 잘 실현될 수 있도록 그 길을 닦아 주는 작업이 정부의 몫이다.

4.3) 사랑의 변증법과 경제발전

사랑은 형태이기 보다는, 능력이다. ‘사랑은 말하기 보다는 실천하는 것이 예술이다’라고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주장한다.¹⁶⁾ 그에 주장에 따르면 사랑은 진리로 인도하는 힘이 있고, 또한 변화시키는 생명력을 보유한다. 사랑의 교류는 생명의 교류를 동반한다. 이러한 현상은 사람들 간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동식물의 사이에서도 발생한다. 인간이 동물이나 식물을 키우면서 사랑을 주면 그 것이 건강하게 잘 자란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입증된 사실이다.

생명체를 변화시키는 힘이 발현하려면, 사랑은 행동을 동반해야 한다. 한 알의 씨가 땅에 떨어져 썩으면 나무가 자라게 된다. 한 사람이 사랑에 이끌리어 자신을 스스로 희생하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는 혜택을 누린다. 희생으로 발현된 사랑은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을 희생해가면서 자식을 교육시키는 경우가 많다. 맹자의 교육 역시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이 만들어낸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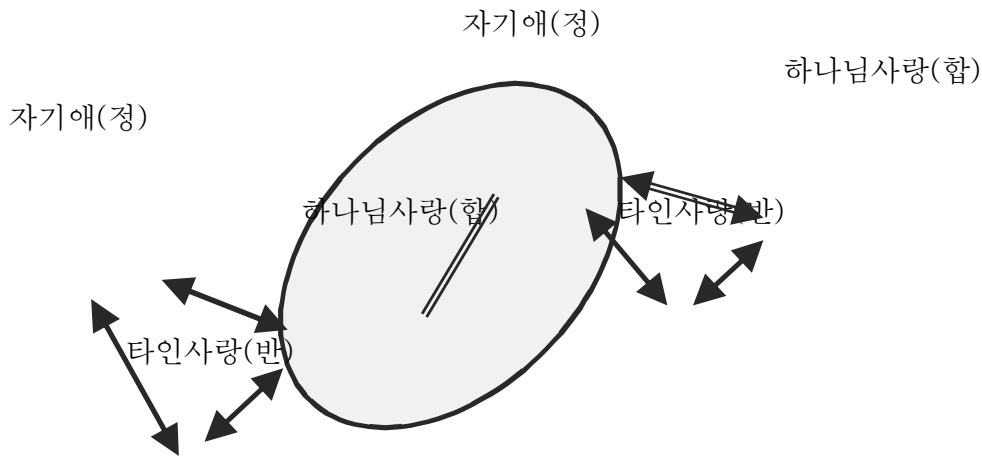
사랑은 흐르는 것으로 받은 만큼, 자신 안에 쌓이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내 보낼 수 있는 것이다. 사랑을 적게 받은 사람은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도 적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적다. 사랑은 자신과 타인을 연결하는 고리이기 때문에, 사랑이 많은 사회일수록 안정적이다. 사랑이 적은 사회는 조그마한 충격에 크게 요동친다. 경제적으로 표현하면 서로 간의 신뢰가 쉽게 붕괴된다.

사랑이 서로 연관되어 생명력을 어떻게 형성시켜 가는지를 헤겔의 변증법을 기초로 이해할 수 있다.¹⁷⁾ 우선 자기애와 타인사랑을 변증법의 정과 반의 관계로 이해할 수 있다. 자기애에서

16) Soren Kierkegaard, Works of love, Edited and Translated by Howard V. Hong and Edna H. Hong, Princerton University press, 1995, 페이지 359.

인간은 자신을 목격하고, 인식한다. 그리고 자기애를 기초로 타인을 사랑하면서 자기애를 떠난 타인사랑을 실천한다. 자기애는 정이되고, 타인사랑은 반이 된다. 그러면서 자기애와 타인사랑에서 공통점으로 존재하는 사랑을 알게 된다. 자기애와 타인사랑을 모두 합한 위대한 사랑이 곧 합의 상태이다. 합의 상태에서 발견된 자기애의 모습은 더욱 완숙한 상태를 반영한다. 다음 단계에서 다시 시작되는 정-반-합의 과정은 더 완숙한 모습의 사랑을 출발점으로 시작한다.

표1) 사랑의 변증법



헤겔의 변증법에 따르면 자기애는 주관적 사랑에 속하는 것이고, 타인사랑을 통하여 객관적 사랑으로 변하게 되고, 자기애와 타인사랑이 합으로 이루는 사랑은 일반성을 갖춘 실천적 사랑의 성격이 된다.¹⁸⁾ 즉 주관적 사랑이 실천적 사랑으로 승화되기 위해서는 타인사랑이라는 단계를 거쳐야 하는 것이다. 자기애가 타인사랑과 결합할 때에만 실천적 사랑으로 완숙되는 것이다. 실천적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려면 자기애와 타인사랑 안에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해야 하는 것이다.

경제행위의 동기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 질 때에 타인사랑도 가능해지고, 실천적 사랑으로 완성되어진다. 결국 자신의 욕구충족을 위한 이기적 행위와 나눔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통합되고, 서로의 상생관계를 통하여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간다. 이러한 사랑의 변증법은 우리 안에서 계속 일어나고, 주변 환경을 변화시켜가는 원동력이 된다.

한편 자기애만 존재하고, 타인사랑이 없는 경우에는 사랑이 실천적 사랑으로 변화될 수 없고, 단지 주관적 사랑으로만 존재하게 된다. 사랑의 객관성과 일반성이 결여되고, 사랑이 성숙한 모습으로 성장해가지 못한다. 사랑이 실천적 힘을 발휘하려면 자기애와 타인사랑 간의 원만한 상호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 자기애가 타인사랑으로 연결될 때에만 사랑이 사회를 변화시켜가는 것이다. 그리고 정신의 변화는 현상의 변화를 동반하기 때문에, 사랑이 점점 성숙한 모습으로 성장하면서 경제도 발전해 가는 것이다.

17) G.W.F., Hegel, Wissenschaft der Logik II, Duesseldorf, 1981.

18) Hegel, Wissenschaft der Logik II, 페이지 230.

5) 맺는말

경제행위의 동기가 되는 이기심을 사랑과 분리된 자연법칙의 한 부분으로 규명하면서, 경제학에서 윤리적 요소는 배제되어 왔다. 경제행위에서 규범적 요소가 제거된 후에 경제학은 경제공학의 대상이 되었고, 오직 합리성에 기초한 이윤추구 내지는 효용극대화만이 관심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들은 금융위기를 촉발시켰고, 기존의 경제이론들은 이를 방지할 능력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비윤리적 행위들로 인한 문제의 답을 올바르게 제시하지 못하는 경제공학은 경제학을 무능력한 학문으로 낙인찍는데 기여하고 있다.

경제학이 현실문제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경제행위 안에 내포된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는 진실성을 보여야 할 것이다. 우선 경제행위 안에 잠재된 규범적 요소들을 밝혀야 할 것이다. 교환경제가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공동체를 살려 나가는 힘을 가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에, 그 힘의 실체가 무엇인지 밝혀야 할 것이다. 이는 효율성도, 공정성도, 합리성도 아닌 사랑이다.

효율성과 공정성과 합리성만 가지고 시장경제는 원만하게 운영될 수 없고, 오히려 불균형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시장경제가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결과들을 만들어 내려면 사랑의 역할이 재조명되고,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사랑은 경제행위의 진정한 동기이고, 경제행위의 과정과 결과들을 창조주의 질서와 화합하게 만든다. 하나님이 원하는 청지기의 역할은 사랑을 실천하는 경제인들이 완성해 가는 것이다. 실천적 사랑은 자기애가 타인사랑으로 나타날 때에만 가능하다. 사욕에 기초한 이기심은 사랑을 외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되는 사회를 만들어 가지 못한다. 사랑에 기초한 이기심은 타인사랑을 실현하면서 비도덕적, 비양심적 경제행위들을 스스로 억제하고, 시장경제의 효율성과 공정성 향상에도 기여한다. 큰 자기애는 큰 타인사랑을 가능하게 하면서, 큰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어 간다. 이는 더 큰 경제발전을 가능하게 한다. 사랑이 충만한 사회를 만들어 가지 위해서는 자아사랑이 커지고, 이것이 타인사랑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경제행위에 기초가 되는 사랑의 역할이 더 많이 인정받고, 밝혀질 때에 경제학은 풍요로운 사회를 건설해가는 실용적 학문으로 재평가 받을 것이다.

참고문헌

- 장 준만, 이견희 시대, 인물과 사상사, 2005.
- 레이먼드 머피 지음, 오수길, 정용일 역, 합리성과 자연, 도서출판 한울, 2000.
- 부루베이커 저, 라제민 역, 합리성의 한계, 법문사, 1985.
- 지그문트 프로이트 저, 박찬부 옮김, 쾌락 원칙을 넘어서, 열린책들, 1997.
- 아담 스미스 저, 박세일 민경국 공역, 도덕감정론, 비봉출판사, 1996,
- Fromm, Eric, Selfishness and Self-love, in: Journal for the Study of International Process, Vol2(1939)
- Hegel, Georg Wilhelm Friedrich, Wissenschaft der Logik II, Duesseldorf, 1981.
- Hyman, David N., Public Finance, Ohio, 2005.
- Kierkegaard, Soren, Works of love, Edited and Translated by Howard V. Hong and Edna H. Hong, Princerton University press, 1995,
- Mandeville, Bernard, The fable of the bees, Indianapolis, 1997.
- Marx, Karl, Einleitung zu den "Grundrisse der Kritik der politischen Oekonomie", Berlin, 1979.
- Marshall, Alfred, Principles of Economics, London, 1959.
- Sen, Amartya, On Ethics and Economics, Oxford, 1987,
- Smith, Adam, The Theory of Moral Sentiments, Oxford, 1976.
- Smith, Adam, The Wealth of Nations, New York, 1937.